



산업활동 부진, 전 부문으로 확산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6월 산업활동은 생산, 소비, 투자 등 전 부문에 걸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서비스업, 건설업, 광공업에서 생산이 감소하여 전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.1%(전월대비 0.3% 감소) 증가하였으나 5월 1.8%에 비해 1.7%p 감소하였음.
 -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0.4%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 3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전월대비 감소로 전환한 것이며,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도 5월 2.9%보다 1.3%p 하락한 1.6%로 나타났다.
 -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.2%증가(전월대비 0.4% 감소)하였는데 5월 2.3%보다 1.1%p 하락하였음.
- 소매판매는 내구재(-0.8%)와 비내구재(-0.2%), 준내구재(-1.7%) 판매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.5% 감소를 기록하였으며,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0.6% 증가하였으나 5월 2.2%에 비해 1.6%p 감소하였음.
-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 투자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6.3%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5.6% 감소하였음.

■ 국내 기계수주 감소폭 확대와 제조업 업황 BSI 하락세로 당분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

- 설비투자가 급감한 이유는 유럽재정위기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었기 때문임.
-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전년동기대비 33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⁾ 이는 운수업,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에서 발주가 감소했기 때문이며, 4월 이후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음.

1) 국내기계수주 전년동월비 '12.4(-6.9%) → '12.5(-10.9%) → '12.6(-33.5%).

- 또한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는 전월대비 11p 하락한 71p로 2009년 4월(67p)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 업황전망 BSI도 전월(81p)대비 11p 하락한 70p를 기록하였음.
 - 대외경제 악화와 이에 따른 수출 감소, 기업 체감경기 악화 지속으로 당분간 설비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반면, 6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1% 상승하였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개선, 수출입물가비율²⁾ 상승, 건설수주액 증가 등으로 1% 상승하였음.

(2012년 6월 및 2/4분기 산업활동동향, 통계청, 7/31 외)

2) 수출입물가비율 = 수출물가지수 ÷ 수입물가지수 × 100